

April 06 십자가로 족하다

• 요한복음 3:1-21

부흥회를 마치고 정리할 때쯤 한 청년이 부흥사에게 다가왔습니다. “목사님!

제가 구원을 받으려면, 무슨 일을 해야 하나요?” 부흥사가 답했습니다. “여보게 젊은이! 너무 늦었네. 이미 늦었다니까.” 청년은 당황했습니다. “집회에 너무 늦게 온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늦었다는 말씀인가요?” 부흥사가 웃으며 답했습니다. “자넨 구원받기 위해 뭔가 해야겠다고 생각하지만, 이미 수천 년 전, 구원의 역사는 십자가 위에서 완성되었다네. 지금 자네가 구원받기 위해 할 일은 하나도 없네. 다만 무릎을 끓고, 그리스도께서 자네를 위해 행하신 일을 받아들이 기만 하면 된다네.”

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. 믿기만 하면 됩니다.

니고데모는 믿는 자마다

영생을 얻는다는 말 뒤에 무언가 더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.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모든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믿는 것뿐입니다. 문제는 우리의 ‘굳은 마음’입니다. 하나님은 죽게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‘놋뱀을 보면 살리라’(민 21:8)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실제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모두 살았습니다(민 21:9). 굳은 마음이 들어서면,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습니다. 감사가 사라지고, 이성과 노력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.

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할 일은 사랑입니다.

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려

고 값을 치르셨습니다.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반응하는, 그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. 하나님은 들을 준비와 말씀 할 준비가 되셨습니다. 가장 좋은 것을 줄 준비도 되셨습니다(마 7:7, 11).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. 아버지는 독생자의 피 값으로 구하신 당신의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주십니다(롬 8:32). 자녀들 속에 성령으로 거하셔서 모든 순간을 함께하십니다. 나는 이방인이 아닙니다(마 6:32). 자녀로서 아버지와 마음껏 사랑을 누리십시오. 십자가면 족합니다. 믿음이면 족합니다.

나는 하나님의 사랑을
온전히 누리고 있습니까?

- ❶ 예수님이 내 짓값을 이미 치러 주셨음을 믿습니까?
- ❷ 하나님이 나를 속량해 주신 이유를 깨닫습니까?